

#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 방안

## Developing the Evaluation System of University Library for Activating Inter-library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조재인(Jane Cho)\*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br>평가 방안 |
| II. 국내 대학도서관 평가 현황 분석       | V. 결론                              |
| III.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 현황 분석 |                                    |

### 초 록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정보량의 부족, 지방대 정보 격차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외국 정보원에 대한 절대적 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학간 원활한 학술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보 공유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공유 현황을 분석하고, 공유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여도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를 기존 대학 평가 체제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평가, 학술정보, 정보 공유

### Abstract

Korea is in the state of insufficient supply of research information, a gap of inform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bsolute depends on foreign information resource. So it is necessary to activate inter-library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To encourage consciousness and spontaneous effort to inter-library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university library evaluation system of contribution toward resource sharing is required. This study intends to survey present condition of inter-library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in Korea, and develop evaluation system about inter-library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And propose operating methods of evaluation system which insert established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or execute independently.

Key Words: Evaluation system, Research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University library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선임연구원  
 • 접수일 : 2003. 11. 14 • 최초심사일 : 2003. 11. 27 • 최종심사일 : 2003. 12. 3

## I. 서 론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49개 국가중에 28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교육경쟁력 부문은 32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등교육시장의 개방, 지방대학 위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고등교육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지방대를 포함한 대학의 질적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교육·학술연구 정보의 필요성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이 도서관의 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학도서관은 캠퍼스의 심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2년 9월말에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안)'발표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이 국가의 지식 공유·활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중 하나로 대학도서관간 자료 공유체제 구축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학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유통 체계를 활성화하여, 단위 대학도서관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보 수요를 충족하고,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원활하게 유통하겠다는 것이다.<sup>1)</sup>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단위 대학도서관 보유 장서수는 평균 22.3만책으로 378책인 미국에 비하여 1/16에 불과하며, 보유 학술지 종수도 평균 1/10에 불과한 상황이다.<sup>2)3)</sup> 이렇게 열악한 예산 및 자원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예산과 자원이 열악한 지방 대학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보여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30여년전부터 도서관 중심의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NII(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 구 NACSIS)와 같은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가 존재하는가 하면, 미국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같이 도서관들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협의체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7년에 교육부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구 첨단학

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안), 2002, [인용 2003. 8. 5].

2) ARL, *ARL Statistics*, 2002, [cited 2003. 8.1].

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2002(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5.

술정보센터,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이하 KERIS)을 설립하고, 전국 대학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를 시발점으로 국회도서관, 총리실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 이하 KISTI),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이하 KAIST 도서관) 및 광주과학기술원(K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이하 KJIST 도서관)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학술정보의 효과적 공유와 유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 제정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미흡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개별 도서관 자체의 체계적이지 못한 자원 관리와 자관 구축 정보에 대한 소극적 제공이 원활한 정보 유통 및 공동 활용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 특성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 개발 계획, 표준화, 지적 재산권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정보 공유에 대한 대학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유도하고 대학도서관간의 경쟁적 발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평가 체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 영역은 대학 평가 체제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며,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는 평가 대상으로 고려 조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첫 번째로 현행 각종 대학 평가 체제를 대상으로 도서관 부문 및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의 평가 현황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학술정보 자원의 종류 및 방식을 분석하여,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를 도출한다.

세 번째로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를 기존 평가 체제에 편입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II. 국내 대학도서관 평가 현황 분석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평가 체제는 국내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학 평가 체제에 일부 요소로 포함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 평가 체제는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인정제,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부 평가, 언론사 주도의 평가 제도 등이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2003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경우, 도서관 부문이 전체 평가 요소 및 배점의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항목들도 불균형성과 비현실성으로 지적받고 있다. 도서관 부문의 평가 항목은 전체의 5%, 평가 비중의 경우 전체의 4.6%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기본계획’의 경우, 2003년도부터 도서관 부문 평가 항목을 대폭 삭감하였고, 평가 항목도 ‘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로 제한하였다. 2002년도 일반지원 평가 지표의 경우, 32개 76개 항목에서 2003년도 5개 지표 19개 항목으로 축소되면서, 결국 도서관 부문의 평가 비중도 4%로 축소되었다.

2002년도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의 경우도 역시, 도서관 부문은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구입비’ 1개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비중도 전체의 5%에 불과하다.

현행 대학 평가 체제내에서 수행되는 도서관 부문의 평가 비중 및 항목을 요약해 보자면, 공통적으로 평가 비중은 전체의 4 - 5%에 불과하며, 평가 항목도 대체로 자료 확보 정도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에 관련된 부문은 평가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3년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2000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학종합평가의 도서관 부문 평가 비중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도서관 부문의 평가 항목을 이용자 서비스, 정보화, 자료, 인적자원, 시설, 예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14점, 10점, 14점, 10점, 6점, 6점(총 60점, 12%)으로 배점하도록 건의하였다. 특히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교류 실적’, ‘특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혹은 DB 구축 실적’,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 실적’에 각각 2점씩 배정하여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에 총 6점(1.2%)을 추가하도록 건의하였다.<sup>4)</sup>

〈표 1〉 대학교육협의회(2003)\*, 교육인적자원부(2003)\*\*, 중앙일보(2002)\*\*\* 의 대학도서관 부문 평가 기준

구분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기본 계획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대학부문	대학원부문	공사립특성화 기반조성	공사립특성화 우수대학	
비중	23/500	10/300	4/100	2/100	10/180
항목수	3/55	2/45	1/19	1/14	1/16
항목 내용	· 도서 및 정보자료의 확보와 활용(15) · 정보처리체계의 구축(5) · 정보화를위한 조직(3)	· 도서 및 정보자료(6) · 정보활용도(4)	· 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 학생 1인당 비도서 구입비)		·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구입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대학종합평가편람, 2003, [인용 2003. 7.10].

\*\*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기본 계획, 2003, [인용 2003. 8. 1].

\*\*\* 중앙일보, 2002 전국대학평가, 2002, [인용 2003. 7.1].

4)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 기준 개발 연구, 2000, [인용 2003. 8. 2].

2003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한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현행 대학 평가체제 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부문의 평가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논의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독자적인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의 개발 및 시행이 건의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독립적인 도서관 평가 체제에 대한 시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인식도 저조한 상태이다.

### Ⅲ. 국내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부처별로 추진된 각종 정보화 사업에 힘입어, 다양한 디지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였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도 생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는 1999년에 KERIS를 설립하고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한 KISTI는 최근 국가연구정보협의회를 발족하여 정보 자원 활용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KAIST 도서관과 KJIST에서도 대학과 연구소를 망라한 해외학술정보 공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에서도 2003년 8월 현재 대학을 포함한 484개 기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양기관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료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학 기반 학술정보 공유·유통 실태를 분석한다. KERIS, KISTI, KAIST 과학도서관, KJIST, 국회도서관의 대학 기반 학술정보 공유 현황을 사업 내용별로 분석해 본다.

#### 1. 메타데이터 공유 사업(종합목록 및 기사색인)

학술정보 메타데이터는 단행본 목록, 연속간행물 목록 및 기사색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목록은 종합목록의 형태로 구축되어, 협의체 참여 기관의 공동 목록 작성을 위하여 활용되거나, 정보의 소재 지시 기능을 통하여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서비스에 활용된다. 단행본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는 2003년 8월 현재 402개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KERIS의 UNICAT이 대표적이며, KERIS 종합목록을 기반으로 공동목록 작성 작업과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는 공동목록 작성 기능보다는 원문복사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되며, 정확한 정보의 소재를 지시하기 위하여 참여 기관의 지속적인 권호 소장정보 갱신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이 참여한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은 KERIS, KAIST 과학도서관, KJIST, KISTI가 운영하고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표 2〉 메타데이터 공유 현황

구분	세구분	KERIS	KISTI	국회도서관	KAIST	KJIST
종합 목록	단행본	○ 402개기관 (대학 348) 서지:602만건 소장:2,750만건	×	×	×	×
		○	○	△	○	○
	연속 간행물	90개 대학	425개 기관 확대 예정	자체 소장분	332개 기관	119개 기관
		6만7천중 (국내외)	3만5천중 (국내외)	1만7천중 (국내외)	19만중 (해외)	1만7천중 (해외)
기사 색인	해외 학술논문 기사색인	○ BL기반 1,500만건	○	○ 자체소장분 19만건	○ BL기반 2,200만건	○ EBSCO기반 1,200만건
		○		○		
	국내 학술논문 기사색인	125개 학회 605개 연구소 2개 민간 64만건	자체 및 일부협력 기관 소장분 1,300만건	자체 소장분 170만건	×	×

기사색인은 협의체 참여 기관이 분담 구축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속간행물 소장 기관에서 자관 구독분을 자체 구축하거나 상업용 데이터를 구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상호대차(원문복사)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는 도서관간에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자원공유 형식이다.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는 KERIS, KISTI, KAIST, KJIS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대학의 수는 2003년 8월 현재, KERIS 229개, KAIST 193개, KJIST 102개이다. KERIS는 협의체 참여 기관이 소장한 국내외 학술 자료를, KAIST와 KJIST는 해외 학술 자료를 공유의 대상으로 한다. KISTI 서비스는 자관 및 일부 협력 기관 소장자료를 대상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원문 복사를 제공하는 DDS(Document Delivery Service)이므로, 대학도서관 소장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타협의체의 ILL(Inter Library Loan)서비스와는 상이하다.

〈표 3〉 상호대차(원문복사) 현황

구분	KERIS	KISTI	국회도서관	KAIST	KJIST
상호대차(원문복사)	○ 338개 기관 (299개 대학)	○ DDS	×	○ 206개 기관 (193개 대학)	○ 119개 기관 (102개 대학)

### 3. 원문 데이터

국가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은 지적 생산물의 경우는 비록 학술연구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원문이 자유롭게 복제 또는 디지털화되어 도서관간에 공유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간에 디지털 원문 형태로 공유되는 자원은 대학이 저작권을 소유한 지적 생산물이 주류를 이룬다. 대표적인 원문 데이터는 학위논문이며, 그 밖에 단과 대학이나 대학부설연구소에서 생산한 학술논문 원문 데이터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대학 생산물의 원문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협의체 운영기관에게 디지털 원문을 직접 제공하거나,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별 디지털 객체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학위논문의 경우, 2003년 8월 현재, KERIS에서는 102개 대학으로부터 21만건의 URL 과 디지털 원문을 제공받아, 전국 대학의 학위논문이 단일 창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경우는 납본되어 자관에 소장하고 있는 학위논문 27만건을 디지털화하여, 협정이 체결된 260여개 도서관의 지정된 단말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 학술논문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의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 통하여 디지털화되었으며, KERIS를 통하여 참여 대학의 학술논문 원문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4〉 원문 데이터 공유 현황

구분	세구분	KERIS	KISTI	국회도서관	KAIST	KJIST
학위 논문	국내	○	○	△ (협정기관 에서만 접근 가능)	×	×
		102개기관 (대학 102개)	원문:6천건	자체 소장분		
		원문:12만건 URL:11만건		원문: 27만건		
국내 학술 논문	대학연구소	○			×	×
		605개 연구소		×		
		원문:23만편				

### 4. 해외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는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 분야 학술 연구자들 사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 매우 고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도부터, 대학은 공동 구매를 위한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해외의 대형 출판사나 정보 공급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해외 DB 공동구매를 위하여, KERIS와 KAIST가 국가 주도형 컨소시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현재 각각 132개 및 27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표 5〉 해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 현황

구분	세구분	KERIS	KISTI	국회도서관	KAIST	KJIST
해외 학술 DB	공동구매	○	×	×	○	×
		132개 기관 63종			275개 기관 5,856종	
	국가 라이선스	○	○	×	×	×
		11종	2종			

#### IV. 학술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평가 방안

##### 1. 기본 원칙

대학도서관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인적·물적 구성요소, 정보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보봉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조직의 경영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는 대학도서관의 자원이 상호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고, 서비스 비용 대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는 정부가 주도하는 학술정보 공유 사업의 참여도를 기반으로 하며, 공유 사업별로 평가 항목을 도출한다. 계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객관성·경제성·용이성을 위하여 모든 항목을 계량화 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관의 규모에 따른 평가 척도를 고안하여, 소규모 도서관의 기여도가 절하되지 않도록 한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 원칙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서관 서비스의 비용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화를 포함한 예산 낭비 요소를 축소하며, 도서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두 번째, 주요 학술정보 공유 사업 내용을 평가 요소로 하며, 모든 평가 항목을 가능한 계량화한다.

세 번째, 항목별 세부 척도는 국내 주요 대학의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상위 10% 내외의 대학을 최고 점수 획득 기준으로 설정한다.

네 번째, 소규모 도서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규모에 따른 평가 척도를 적용한다.

다섯 번째, 도서관이 복수개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우, 개별 공유 사업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1개 협의체의 참여도를 적용하도록 하거나, 복수개 협의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부 평가 기준에서 명시한다.



## 2. 평가 부문의 선정 및 배점 부여

국내 대학도서관간에는 인적자원 교류, 협력적 참고봉사, 업무정보 교환의 형태로도 다양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공유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 메타데이터, 상호대차(원문복사), 원문데이터, 해외데이터베이스 부문을 평가 요소로 한다.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수행되는 메타데이터 부문의 공유 사업은 그 대상을 단행본 목록, 연속간행물 권호소장정보, 기사색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색인의 경우는 도서관간 분담 구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상호대차(원문복사)는 아직까지 실물대차 보다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문복사 서비스 부문만을 평가 요소로 한다.

대학 생산 학술 원문은 학위논문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단과대학, 학과, 부설연구소 등에서 발행하는 학술논문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 기관 자체의 관리 체계 미비로 도서관이 수집 및 디지털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위논문을 제외하고는 도서관간에 원문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위논문 데이터의 도서관간 공유 부문만을 원문 데이터 평가 요소로 한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공동구매 참여 여부는 학술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나, 단위 도서관이 컨소시움에 참여하여, 국가적 바잉 파워 형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평가 요소로 편입한다.

각 부문의 세부 평가 요소는 다음 장과 같이 전개하되, 4개 부분의 전체 배점은 아래와 같이 메타데이터, 상호대차, 원문 데이터 부문에 각각 300점씩을 배정하고 해외 DB 공동구매 참여 부문에 100점을 배정하며, 총 1,000이 되도록 한다.

〈표 6〉 대학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 배점

구분 사업 배점	대학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 배점			
	메타데이터	상호대차	원문데이터	해외 데이터베이스
	300점	300점	300점	100점

## 3. 메타데이터

### 1) 단행본 종합목록

종합목록은 학술정보 공유 유통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로 정보의 소재처를 지시하여 상호대차나 원문복사 서비스를 통해 자원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온라인 공동목록 작성 작업을 통하여, 단위 도서관 목록 작성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종합목록은 협력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력 기관이 보유한 목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게 제공해야만 정확한 소장 정보가 유지될 수 있다. 단행본 종합목록 부문에서는 연간 증가 종수에 따른 종합목록 소장 데이터 제공 건수를 평가한다. 도서관이 복수의 단행본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 가입한 경우, 도서관의 판단하에 대표적인 한개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게 제공한 데이터 건수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배점 : 200
- 평가 지표
  - 연간 증가 종수에 따른 종합목록 소장 데이터 제공 건수.
  - ※ 복수개의 단행본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 가입한 경우, 대표적인 1개 운영 기관 참여도만을 포함함. 단, 종합목록 운영 기관의 공유 대상 자료가 일정 주제 또는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는, 자관의 단행본 증가 종수도 해당 범위로 제한하여 산정함.

〈표 7〉 단행본 종합목록 부문 기여도 평가 척도

연간 증가 종수에 따른 단행본 종합목록 소장데이터 제공 비율	환산 점수
80% 이상	200점
70%-50%	150점
30%-50%	100점
10%-30%	50점
10% 이하	10점

- 산출 방법
  - 가. 연간 증가 종수에 따른 단행본 종합목록 소장데이터 제공 비율 = 단행본 종합목록 운영기관에게 제공한 소장데이터 건수/연간 단행본 증가 종수 × 100
  - 나. 소장데이터 제공 비율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 부여

2) 연속간행물 권호소장정보

연속간행물의 권호소장정보는 학술논문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원하는 기사의 원문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해당 기사가 수록된 학술지의 권호소장정보를 근거로 소재처를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이다. 연속간행물 소장 MARC이나 체크인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권호소장정보를 일정 주기에 따라 반출하여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운영기관에 제공하면, 운영 기관에서 통합 구축하여 원문복사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속간행물 권호소장정보의 경우는 개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 종수에 따

른 권호소장정보 제공 건수를 평가한다. 도서관이 동일한 권호소장 레코드를 복수개의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도서관의 판단하에 대표적인 한개 운영 기관 제공 데이터 건수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배점 : 100
- 평가 지표
  -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에 따른 종합목록 운영 기관 권호소장정보 제공 종수.
  - ※ 복수개의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 가입한 경우, 대표적인 1개 운영 기관 참여 실적만을 기준으로 함. 단, 해외학술지 공유 협의체와 같이, 운영 기관의 공유 대상이 일정 자료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는, 자관의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도 해당 범위를 제한하여 산정함.
  - ※ 연속간행물 권호소장정보 제공 건수는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도분 이상이 갱신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함.

〈표 8〉 연속간행물 권호소장정보 부문 기여도 평가 척도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에 따른 종합목록 권호소장 데이터 제공 비율	환산 점수
80% 이상	100점
70%-50%	80점
30%-50%	60점
10%-30%	40점
10% 이하	20점

- 산출 방법
  - 가. 연속간행물 소장 종수에 따른 종합목록 권호소장 데이터 제공 비율 =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운영 기관에게 제공한 권호소장데이터 건수/소장 연속간행물 종수 × 100
  - 나. 권호소장정보 제공 비율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 부여

### 3) 상호대차(원문복사)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는 대학도서관간 소장 정보자원의 공유도 평가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척도이다. 상호대차(원문복사) 서비스 부문은 연간 제공 건수를 평가 기준으로 하며, 도서관의 보유 장서수에 따라 척도를 달리하여 평가한다.

- 배점 : 300
- 평가 지표
  - 연간 원문복사 서비스 제공 건수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 복수개의 상호대차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협의체를 통해 처리된 원문복사 처리 건수를 모두 합산함.

※ 도서관의 장서수 규모에 따라 평가 척도를 달리함.

〈표 9〉 상호대차(원문복사) 평가 척도

연간원문복사 제공건수	장서수 규모에 따른 환산 점수			
	1급) 1백만 이상	2급) 50만 ~ 1백만	3급) 10만 ~ 50만	4급) 10만 이하
1만 이상	300점	300점	300점	300점
5천 - 3천	250점			
3천 - 1천	200점	250점		
5백 - 1천	150점	200점		
3백 - 5백	0점	150점	200점	250점
1백 - 3백		100점	150점	200점
1백 이하			100점	150점
50이하				100점

○ 산출 방법

가. 도서관의 장서수에 따라 개별 척도에 부합하는 점수 부과.

나. 원문 복사 제공 건수에는 실패 건수를 제외시킴.

4) 원문 데이터

원문 데이터는 도서관이 디지털 원문 또는 디지털 객체의 위치 식별 정보를 협의체 운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단일 창구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디지털화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학위논문을 평가 항목으로 하며, 박사학위 배출 건수 대비 논문 데이터 제공 건수를 평가 지표로 한다.

○ 배점 : 300

○ 평가 지표

- 연간 박사학위 수여 건수에 따른 협의체 운영 기관의 학위논문 원문 제공 건수

※ 복수개의 학위논문 공유 협의체에 가입한 경우, 대표적인 1개 협의체 참여 실적만을 기준으로 함. 단, 협의체 운영 기관의 공유 대상 자료가 일정 주제 또는 범위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는, 자관의 학위논문 수여 건수도 해당 범위로 제한하여 산정함.

〈표 10〉 원문 데이터 평가 척도

연간 박사학위 수여 건수에 따른 협의체 운영 기관의 학위논문 원문 제공 비율	환산 점수
90%	100점
70% - 90%	80점
50% - 70%	60점
30% - 50%	40점
10% - 30%	20점
10%미만	0점

○ 산출 방법

가. 연간 박사학위 수여 건수에 따른 협의체 운영 기관의 학위논문 원문 제공 비율 =  
 $\frac{\text{학위논문 원문 또는 디지털 객체의 위치 식별 정보 제공 건수}}{\text{연간 박사학위 수여 수}} \times 100$

나. 학위논문 제공 비율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 부여

5) 해외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공동구매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한다.

○ 배점 : 100점

○ 평가 지표

- 공동구매 참여 여부

· 1개 이상 참여 : 100점

· 미참여 : 50점

4. 평가 체제 운영 방안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은 기존 대학 평가 체제내에 편입하는 방안, 독립적인 도서관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해당 평가 체제내에 편입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1) 대학 평가 체제내에 편입하는 방안

대학 평가 체제는 대학교육협회의 대학종합평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체제이외에도 언론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각종 평가 체제가 존재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종합평가 체제내 도서관 부문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에는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교류 실적', '특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실적', '네트워크 가입 및 운영 실적'을 포함하여 총 6점(총 1.2%)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나, 위 항목은 내용적으로 다분히 중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가입 실적'내에 '공동목록 구축 실적', '원문 DB 및 색인 DB 공동 구축 실적'이 혼재되어 있어, 중복 영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배점이 전체 도서관 부문 평가 영역에 10%에 불과하여, 도서관간 정보 공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향 조정되어 할 필요가 있다.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메타데이터, 상호대차(원문복사), 원문 데이터 및 해외 데이터베이스 공동구매 참여 실적으로 세분하고, 총 10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전체 도서관 평가 중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이 10%에서 17%로 상향조정되어, 도서관들의 정보 공유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교육부에서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의 경우, 2003년도 공사립 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도서관 부문이 전체의 4%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도 '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로 국한되어 있다.

교육부 평가는 전체가 19개 항목에 불과하여, 평가 지표 자체를 단순화하였고, 소수 정예화했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서관 부문 및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의 평가 항목에 대한 확대 요구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 부문의 평가를 현 4%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부문에 대한 평가 항목도 현 '학생 1인당 자료 구입비'에서 좀더 현실적인 지표로 확장하고,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도 도서관 평가 부문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평가가 단순화의 기본 취지를 고수하여, 해당 평가 체제내에 도서관 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곤란하다면, 독립적인 대학도서관 평가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2) 독립적인 도서관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편입시키는 방안

먼저, 대학도서관 자체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체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대학도서관의 경쟁력 향상 및 정보 공유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부문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도서관협회에서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안한 도서관 평가 항목을 최신화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도서관 부문에서 17%를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립적 평가 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서관 평가 결과가 대학 재정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재정 지원시에도 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도서관의 경쟁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진다.

### 3) 독립적 평가 체제 운영 방안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를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학술정보 협의체 운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학술정보 협의체 운영 기관에서 해당 협의체 참여 기관의 기여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도서관과 혜택을 받는 도서관이 공존할 수 있는데, 혜택을 주로 받는 도서관으로부터는 소정의 비용을 징수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대가의 징수와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V. 결 론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정보량의 부족, 지방대 정보 격차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외국 정보원에 대한 심각한 의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미약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평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 자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각종 대학 평가 체제내에 도서관 부문은 4 - 5%에 불과하며, 평가 항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 공유 현황을 살펴보고, 공유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여도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3가지의 평가 체제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 대학 평가 체제내에 일부 요소로 포함시키는 방안, 독립적인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해당 체제내에 일부 요소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가 자체적으로 공유 기여도 평가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세 가지 평가 방안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술정보 공유 기여도 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대학도서관 평가 체제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재정이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술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기관에서도 해당 협의체 도서관의 자체적인 기여도 평가 체도를 운영하여, 학술정보 공유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도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기본 계획, 2003. [인용 2003. 8. 1].
- \_\_\_\_\_.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안), 2002. [인용 2003. 8. 5].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인용 2003. 7. 3].
- 곽병희.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학 도서관 평가 항목과 그 지표”, 문헌정보학논집, 제7권, 제1호(2001), pp.1-25.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인용 2003. 7. 3].
- 중앙일보. 2002 전국대학평가, 2002. [인용 2003. 7. 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 공유·유통 현황 분석.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인용 2003. 7. 3].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 [인용 2003. 7. 3].
- 한국도서관협회.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개발 연구, 2000. [인용 2003. 8. 11].
- \_\_\_\_\_. 한국도서관기준(안), 2003. [인용 2003. 8. 11].
- \_\_\_\_\_. 한국도서관통계 2002.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3 대학종합평가편람, 2003. [인용 2003. 7. 10].
- ARL. *ARL Statistics*, 2002. [cited 2003. 7. 10].
-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Standard for University Libraries : Evaluation of Performance*, 2003. [cited 2003. 6. 15].